

# 현실과 가상의 충돌...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4차 산업혁명의 충격

클라우스 슈밥 외 26인 지음



인공지능(AI),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량, 3D 프린팅, 로봇공학, 소셜 미디어, 나노기술, 합성생물학, 양자 컴퓨팅, 에너지

저장기술... 요즘 매체에서 '4차 산업혁명'을 보도하며 하루에도 몇 차례 보거나 듣는 IT 용어들이다.

18세기 영국에서 증기기관의 발명에 따라 생산을 기계화한 기술혁신이 '1차 산업혁명', 전기 힘을 이용해서 대량생산의 길을 트 '2차 산업혁명',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전기와 정보기술을 통해 생산을 자동화한 '3차 산업혁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는 디지털·정보 관련 산업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 연례회의'(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다. 포럼을 앞두고 빌 거스턴(MIT 비트-아톰센터 소장) 등 각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가 27명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이룰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미국의 교현회가 발간하는 매체에 기고했다. 최근 출간된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은 기고한 기사를 묶은 것으로 올해 다보스포럼 논의의 모티브가 됐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이룰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까? 구글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술 ▲4차산업혁명의 파급효과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변화 등 3부로 나눠 디지털 제조혁명, 제2의 기계시대의 노동, 로봇의 도덕률 등 18개 핵심의제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한다.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디지털과 물리학·생물학 영역이 융합해 비약적인 정보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생활·업무방식까지 완전히 뒤바뀌는 기술혁명이기 때문이다.

요즘의 디지털 혁명이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1937년 MIT 수학자 클로드 세넨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품질이 떨어지는 유선전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0과 1 디지털 코드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또 1952년 밀링머신에 수치제어 장치를 설치하면서 비롯된 '디지털 제조'는 혁명의 출발점이 됐다. '4차원 산업혁명'은 '비트(Bit)산업'(디지털화된 온라인이 만들어내는 산업)과 '아톰(Atom)산업'(물질로 이뤄진 오프라인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산업)이 결합된다.

'4차 산업혁명'은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를 동시에 안겨 주고 있다. 이전 산업혁명들과 마찬가지로 지구촌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1810년 영국 섬유노동자들이 방직기 도입을 반대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제조현장의 자동화는 '기술적 실업'을 가져올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 창조자가 만든 기술을 능가하는 새로운 기술을 스스로 발명할 수 있게 되는 시점(기술적 특이점)은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본 바 있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기회'에서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간적 환경을 어떻게 새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포괄적이면서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관점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한다. <흐름출판·1만6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빅데이터를 가공해 돈을 버는 세이렌 서버가 인간의 삶과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준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어떻게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을까. 경제가 점차 기술과 정보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중산층의 몰락과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실리온 벨리의 선지자 재런 러니어의 답은, 기계의 들러리가 아닌 가치의 주인으로서 인간 존재를 돌아보게 한다. <열린책들·2만5000원>

▲그림 같은 여자 그림 보는 남자=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람 덕분에 행복한 존재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만나는 가족, 연인부터 회사나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동료, 상사, 선생님까지 많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사랑받고 상처받는다. 책은 영적이고 실린 인간관계를 그림을 통해 풀어보고 생각해보자고 말한다. 예술이아말로 인간의 근원적 고통을 치유하는 하나의 실타레이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사·1만3500원>

▲삼국지 관우의 인성인문학=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연의'를 비롯해 전설, 민담, 경극 등 관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관우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명예보다 사람, 목숨보다 의리를 선택한 관우의 일생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리더에게는 대중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스승으로, 일반인에게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로, 청소년에게는 인생의 목표를 이끌어주는 멘토로서 관우를 보여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준다. <보아스·1만4000원>

▲올드 시네마 150=영화 기획사·제작



자·감독·파워블로거인 박영철이 '올드 시네마'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역사 중에서 무성영화 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할리우드와 유럽, 제3세계에서 제작된 다양한 장르의 고전 작품 150편을 선별해 소개한다. 책에서는 50~60년대 개봉한 영화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단상사, 대한극장, 명보극장, 스키라극장, 국제극장, 명동극장, 세기극장, 수도극장 등 지금은 사라지기도 한 극장에서 개봉한 기록적 사실까지 기록해놓았다. <이슈·1만5000원>

▲리버스=일본 현대문학의 기수로 우뚝 선 미나토 가나에의 장편 미스터리. 커피를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 후카세가 어느 날 날아온 한 줄의 편지를 계기로 꿈꾸는 싸매어둔 과거의 어린 상처를 풀어헤치는 이야기다. 눈을 질끈 감은 채 쉬쉬하며 있고 지냈던 친구의 사고사... 작가는 남자 친구들 간의 우정을 비롯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과거와 현재의 관계, 태부 이래 천착해온 테마인 복수와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비채·1만3000원>

# 음악은 가슴으로 느끼고 몸 속에 저장하는 것

## 더 클래식-셋

문학수 지음

'어느 인문주의자의 클래식 읽기'라는 부제가 붙은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를 읽은 사람이라면 저자 문학수가 클래식 관련 시리즈물을 집필한다고 했을 때 무척 반가웠을 터다. '느리게, 한음 한음을 깊이 눌러서'를 뜻하는 음악 용어를 제목으로 쓴 책은 차분한 글쓰기와 만만함은 내공으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경향신문 음악담당 선임기자인 저자는 2014년 '더 클래식' 첫 권을 펴낸 후



최근 '더 클래식-셋'을 출간, 시리즈 3권을 마무리했다. '바흐에서 베토벤까지'와 '슈베르트에서 브람스까지'를 통해 각각

34곡씩 모두 68곡을 소개했으며 이번에는 3권 '말라에서 쇼스타코비치까지'에서는 모두 33곡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각 권에 등장하는 작품은 많은 이들이 보편적으로 즐기는 곡들을 골랐다.

저자는 '문사철과 인본주의라는 앵글로 음악에 접근'했다고 말한다. 인간은 역사와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인간에 의해 이뤄지는 예술도 가장 핵심에는 '인간'이 항상 숨어있고 있다는 설명이다.

3권에 등장하는 작곡가는 구스타프 말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클로드 드뷔시, 장 시벨리우스, 에드워드 엘가 등으로 심장을 울리는 말리의 교향곡들과 멜랑콜리의 극치를 보여주는 라흐마니노프의 음악들, 스페인 고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파야의 곡, 미국 음악의 새

로운 모습을 보여준 거슈윈의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각 곡마다 3장의 추천 음반을 선정했다. 마니아 취향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보편적 명연주'가 기준이다.

'음악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리하여 내 몸속에 저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이것 저것 많이 들으려 하기 보다는 같은 곡을 여러번 반복해 들으면 서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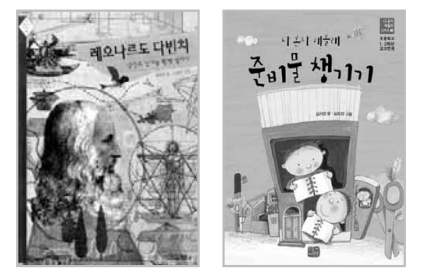
경어체로 구성된 책은 옆에서 친근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다양한 그림과 자료 사진 등 충실한 자료들도 공들여 만든 책임을 보여준다. 이제 막 시리즈가 끝났지만 그의 또 다른 '클래식' 책 이 기다려진다. <돌베개·1만7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어린이 책

▲레오나르도 다빈치,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치다=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과 예술을 소개한 인물 이야기. 다빈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사생아로 태어난 탓에 형제들처럼 좋은 직업을 갖을 수 없었다. 배로키오의 공방에 들어간 뒤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다양한 작품을 의뢰 받으며 명성을 쌓아 이탈리아 여러 도시에서 활약하게 된다. <세계집·1만1500원>

▲나 혼자 해볼래 준비해 챙기기=어린 아이들이 이야기를 읽고 스스로 준비물을 챙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자기주도학습이 무엇인지 직접 해보고, 자기주도학습 목표표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반복하다 보면 다른 학습활동이나 평소 생활에도 적용해서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리틀씨앤북·1만1000원>

▲교과서에 나오는 위인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위인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보통 사람과는 무엇이 달랐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이야기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책을 통해 아이의 꿈을 무려무려 키워 줄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을 전한다. <유아이북스·1만2000원>

▲물렸거라! 양땀 나기신다=소설가 김홍신 선생님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아동문학가 임영주 선생님의 풍부한 언어적 감성이 더해져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배움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통문화 그림책 시리즈. 여름방학이 되어 시골 할아버지 집에 간 한울이가 심심해 하다가 어느날 친구들과 전통놀이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노란우산·9800원>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 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한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삼계탕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